

한우

한우협
8대 회장에
김홍길씨

▲ 전국한우협회 8대 회장에 경북 의성의 김홍길씨(오른쪽서 두번째)가 선출됐다.

전국한우협회 제 8대 회장은 김홍길씨가 당선됐다.

전국한우협회는 2월 26일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회장 선거에는 당초 3파전이 예상됐지만 총회 하루 전인 2월 25일 일신상의 이유로 최삼호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김홍길 후보와 조위필 후보가 맞붙어 김홍길씨가 대의원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56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136표를 얻어 신임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어 부회장에는 강원도 횡성의 최경식씨, 경남 김해 하태문씨가 추천을 받아 부회장 찬반투표를 벌여 찬성이 많아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김홍길 당선자는 앞으로 3년간 한우협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김홍길 당선자는 당선소감을 통해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라며 “지난 3년간 한우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만큼 한우산업, 한우농가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경북 의성출신으로 한우협회 의성군 지부장, 경북도지회 감사, 부회장, 도지회장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한우협회는 2014년도 결산 및 2015년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한우협회는 올해 사업예산으로 지난해보다 6.5% 증가한 16억 원을 확정했다.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5. 02. 27]

한돈

2015 한돈 홍보대사에
‘이서진·홍진영’ 씨
위촉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배우 이서진과 가수 홍진영을 2015년 한돈 홍보대사로 위촉, 지난 2월 5일 위촉식을 실시했다.

이서진과 홍진영은 앞으로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게 된다. TV 및 지면광고 촬영, 관련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밥상 위의 국가 대표 한돈’을 홍보할 계획이다.

배우 이서진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한돈 홍보대사를 맡았다. 그는 “돼지고기를 좋아해서 자주 한돈을 즐긴다”며 “앞으로도 밥상 위의

국가대표 한돈을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처음으로 한돈 홍보대사를 맡은 홍진영은 “평소 몸매관리를 위해 돼지고기의 저지방 부위를 즐겨 먹는다”며 “앞으로 한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서진과 홍진영의 한돈 TV 광고는 2월 23일부터 방영되었다.

낙농 스타벅스·낙육협 우유 소비 캠페인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2월 9일부터 6월말까지 4개월 여간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손잡고 ‘우유사랑라떼’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분유재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를 돕고 소외계층에 ‘사랑의 우유’를 보냄으로써 국산우유 소비촉진에 기여한다는 공익적인 취지에서 스타벅스와 한국낙농육우협회가 공동 추진하게 됐다.

스타벅스는 2월 9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전국 약 720개 매장(미군부대 및 시즌운영매장 제외)에서 카페라떼 톨(Tall)사이즈를 ‘우유사랑라떼’로 명명하고 3,900원(현재 판매가 4,600원)에 제공하고 판매 1잔당 100원을 적립해 최대 1억 5,000만 원을 조성, 한국낙농육우협회 ‘K-MILK 사랑의 우유 보내기 운동’에 기탁할 예정이다. 기탁된 성금은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사회복지단체를 통해 소외계층에 우유를 전달할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연간

1만 8,540톤의 국산 우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1,545톤(연간 사용량의 8.3%)의 우유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정렬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FTA 확대, 우유수급 문제로 낙농가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스타벅스와 의미 있는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침체된 우유시장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스타벅스 캠페인을 계기로 K-MILK 사랑의 우유 보내기 운동에 많은 기업들이 동참해 우리 사회와 낙농업계에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석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대표이사는 “최대 우유재고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업계에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우유사랑라떼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히고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우유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를 희망 한다”라고 말했다.

축산경제 이혜진 기자 [2015. 02. 13]

토종닭 새 수장에 김근호씨



한국토종닭협회 제8대 회장에 기호 2번 김근호 후보<사진>가 당선됐다.

김근호 회장은 2월 26일

열린 한국토종닭협회 정기총회에서 총 47표 중 33표를 얻어 최종 선출됐다. 신임 김근호 회장은 1950년생으로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1989년 토종닭 사육을 시작해 2003년 전국토종닭연합회 초대회장을 지내고 지금까지 토종닭협회의 명예회장직을 역임했다. 김근호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토종닭협회의 수장으로서 협회를 이끌게 된다.

김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협회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위기에 빠진 토종닭산업을 빨리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2015. 02. 27]

양봉

조균환 양봉협회장 재선 성공



한국양봉협회 회장 선거에서 현 조균환 회장(사진)이 당선됐다. 한국양봉협회는 지난 2월 4일 대전 유성 아드리아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차기 협회를 이끌어 나갈 임원을 선출했다. 조균환 회장은 주목을 끌었던 전 배경수 회장과의 대결에서 승리해 다시 한 번 전국 양봉농가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조균환 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지지해주신 모든 양봉농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국내외 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시 한 번 회장을 맡았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심성의껏 일해 나갈 것

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015. 02. 06]

사슴

생녹용 유통 합법화... 사슴업계 오랜 숙원 해결

생녹용 유통이 합법화 됐다.

한국사슴협회(회장 정유환)은 지난해 4월부터 식약처에 요청하여 추진한 생녹용관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고시 개정안이 지난 2월 3일자로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공포내용을 보면 식품공전에 생녹용을 추가하고 사용조건은 생녹용의 털을 제거하거나 90℃이상 열수 등으로 3회 이상 세척 후 냉동 상태로 포장 및 보관, 유통된 것이어야 하며 추출가공식품류에만 사용토록 했다.

따라 현재는 건조공정을 거친 건녹용 만을 유통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생녹용을 사용조건에 따라 처리한 것은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사슴협회 신대복 사무총장은 “사슴농가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이제 사슴농가에서 생산한 생녹용에 대한 유통이 풀려 시장이 활성화 되고, 그에 따라 농가의 소득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유환 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슴농가에 식품기준 등을 널리 알려 생녹용 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농가의 소득증진과 국내 사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015. 02. 11]